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老子』 대립구조의 기준과 유형
3. 『老子』 대립구조의 함의
 - 1)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
 - 2) 두 대립항의 가치 동등
 - 3)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과
4. 결론

1. 서론

老子的 글쓰기는 흔히 부정, 역설, 반전, 초월 등으로 표현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역설로 대표된다. 역설적 표현은 현세를 살아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세와 상반된 표현에 혼동을 줌과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큰 가르침에 감동과 여운을 느끼도록 한다. 老子는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혼동스러워 할 독자들을 위해 그 사용 이유를 친절하게 덧붙여 놓았다.

正言若反(78장)

(진리의 말은 반대로 말하는 듯하다)

玄德深矣, 遠矣, 與物反矣(65장)

(그윽한 덕이 깊고 커서 현세의 일과 반대가 된다)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老子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 목표는 바로 '正言'과 '깊은 덕', 즉 참된 道를 밝히기 위해서이며, 이는 현세에서 인식하는 常理와 종종 반대되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老子는 왜 道를 알리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老子는 우주와 세계에 대한 통찰을 '道'라는 글자로 나타내었고, 현세의 통치자를 위해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不言之教', '知者不言'이라 스스로 말했듯이,老子는 언어에 대한 한계성을 극렬히 표명했던 만큼, 道의 인식과 소통을 위한 표현에 고민을 하였고, 그 표현방법으로 설정되었던 것이 소위 역설과 부정, 초월, 대조 등의 시적 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이러한 표현 방법과 관련된 술어를 역설과 대조로 압축하기로 한다. 부정, 초월 등은 모두 역설과 관련된 언어의 모순적 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조는 『老子』에서 역설적 표현 이상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다. 상기했듯이, 깊고 큰 道는 현세의 사물 사건에 대한 인식과 많이 괴리된다. 이에老子는 역설로 독자들에게 혼동과 여운을 주는가하면 글자, 단어, 구, 문장의 대조를 통하여 道와 현세의 인식을 상세히 예증하기도 한다. 오진탁은 '正言若反'에서 '反'의 함의에 대해 '반대'의 뜻 외에 상반된 것들의 '상생'작용을 언급하였다.¹⁾ '有無相生', '難易相成', '知其雄, 守其雌' 등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역설이 아닌 대조의 수법이다. 최진석은 道 자체를 대립쌍이 서로 꼬여서 이루어진 우주의 존재 원칙이라 하였다.²⁾ 道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상고할 필요가 있지만, 『老子』에서 서로 대조되는 대립쌍이 얼마나 많이 운용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역설이 표현과 의미의 대립이라면, 대조는 표현과 표현, 의미와 의미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역설과 대조의 공통분모는 바로 대립이다. 즉老子는 대립을 통하여 道를 현세와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老子』역설적 표현의 함의를 '대립적 상보성', '양가성'³⁾ 등으로 많이 설명한다. 즉 대립

1) 오진탁, 『『도덕경』에서 '正言若反'의 철학적 함의』, 『인문학연구』 2·3집합본호, 1996, 336-340쪽.

2) 최진석, 『老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 소나무, 2001, 40쪽.

3) 대립적 상보성이란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개념들이 부분적으로는 상극적 상반적 관계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생적, 상성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참고: 이경무, 『老子 철학에 있어서의 역설과 부정』) 양가성은 개별적 모순인 동시에 총체적 상통인 내재-초월의

쌍의 상생을 주로 언급한 것인데, 여기에는 역설적 표현의 기준과 범위, 함의의 다양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대립적 상보성, 양가성은 역설에 의해서라기보다 대조적 표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역설적 표현은 道의 특성, 道者의 행위, 현세의 사건 등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 결과, 원인, 방법 등을 나타내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역설과 대조를 총괄하여 대립구조로 파악하기로 한다. 먼저 대립구조의 기준과 유형을 설정하고, 그 기준과 유형에 따라 『老子』에 출현하는 대립구조를 선별하고, 그 함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老子』 대립구조의 기준과 유형

대립구조의 필수 조건은 두 대립항의 출현이다. 두 대립항은 문장 안에서 각각의 글자와 단어, 구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며,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두 대립항의 의미유형,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라 아래 4가지의 유형과 명칭으로 개괄할 수 있다.

가. 'A-B'유형	(긍정적 동등 대립구조)
나. 'A-b'유형	(긍정적 유사 대립구조)
다. 'A-不A'유형	(부정적 동등 대립구조)
라. 'A-不a'유형	(부정적 유사 대립구조)

A, B는 동등한 의미 유형과 단위를 가진 두 대립 항을 나타낸다. 즉 'A'의 의미 유형이 사물, 행위, 사건 등이라면 'B'는 그와 상반된 의미의 긍정적 사물, 행위, 사건을 나타내며, A의 의미 단위가 글자, 단어, 구, 문장, 단락이라면, B의 의미 단위 역시 이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善-惡'과 같은 형태이다. '不A'는 'A'의 부정적인 사물, 행위, 사건을 나타낸다. '善-不善'과 같은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不'는

모순병존의 사유를 말한다.(참고: 오태석, 「역설의 즐거움: 노장 존재론의 부정성」)

부정부사 ‘不’를 포함하여 부정의 의미가 있는 ‘無’, ‘莫’, ‘勿’ 등을 포괄한다. a, b는 A, B와 관련된 현세의 常理적 속성, 결과, 방법 등을 나타낸다. 본 문에서는 가형, 다형과 같이 동등한 의미유형과 단위의 대립항으로 구성된 대립구조를 동등 대립구조로, 이와 상대적으로 나형과 라형을 유사 대립구조로 구분하기로 한다. 또한 가형과 나형은 모두 긍정형의 대립구조로, 다형과 라형은 부정형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각각의 유형에 대해 상기한 괄호 안의 대립구조로 명명하기로 한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老子』 대립구조의 선별 기준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A - B’유형(긍정적 동등 대립구조)

- (1) 有, 無相生(2장)
(있고, 없음은 서로 만들어지는 것)
- (2) 柔弱勝剛強(36장)
(부드럽고 약함이 굳세고 강함을 이긴다)
- (3) 大丈夫處其厚, 不居其薄(38장)
(대장부는 두터움에 머무르고 얇음에 처하지 않는다)
- (4) 俗人昭昭, 我獨昏昏. (20장)
(세상 사람들 모두 총명한테 나 홀로 멍청하네)

먼저, (1)에서는 ‘有’, ‘無’ 字가 두 대립항으로서 주어 위치에서 병렬형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2)에서는 명사성 구인 ‘柔弱’과 ‘剛強’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서 일종의 주술형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3)에서 술목구조 ‘處其厚’와 ‘居其薄’이 연합형 대립구조를 이루며, (4) 역시 전체가 연합구조로 ‘俗人昭昭’와 ‘我獨昏昏’이 각각 문장의 형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가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립구조 별 그 단위가 글자, 단어, 구, 문장으로 다양하지만, 하나의 대립구조에 속해 있는 두 대립항은 모두 동일한 단위와 의미유형을 가진다.

나. 'A - b'유형(긍정적 유사 대립구조)

- (5) 爲者敗之, 執者失之 (64장)
(('억지로) 일삼는 자는 망치고, ('억지로) 잡는 자는 놓친다)
- (6) 戰勝 以喪禮處之(31장)
(전쟁에서 이기면 상례로 임한다)
- (7) 民之難治, 以其智多(65장)
(사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5)의 “爲者敗之”는 ‘爲’와 ‘敗’가 두 대립항이 되는 주술형 대립구조이다. 常理로 볼 때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랴도 해야 한다. 즉 ‘爲者’가 ‘成之’해야 하지만 오히려 ‘敗之’라고 하여 상리와 반대되는 역설의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爲’, ‘敗’는 동등한 의미유형이 아니라 ‘敗’는 ‘爲’라는 동작의 결과로 작용하고 있어 유사 대립구조가 된다. ‘執者失之’에서 대립항인 ‘執’과 ‘失’ 역시 동일한 대립구조이다. (6)은 ‘戰勝’과 ‘喪禮’가 서로 대립항이 되는 주술형 구조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常理와는 달리 ‘喪禮’로써 슬퍼한다고 하였다. ‘喪禮’는 그 대립항인 ‘戰勝’에 대한 일종의 방법을 나타낸다. (7)은 ‘民之難治’와 ‘其智大’가 대립항이 되는 주술형 대립구조로 두 대립항의 의미관계는 결과와 원인을 나타내고 있다. 나형인 ‘A-b’ 유형은 이와 같이 두 대립항의 의미 유형이 대등하지 않고, 하나의 대립항(A)에 대해 현세의 상리상, 그와 상반되는 결과, 방법, 원인(b) 등을 나타내는 의미항으로 구성이 된다.

다. 'A - 不A'유형(부정적 동등 대립구조)

- (8) 知不知上, 不知知病(71장)
(알지 못함(의 속성)을 아는 것이 훌륭하고 앎을 알지 못하면 병이다)
- (9) 道常無爲而無不爲(37장)
(道는 항상 억지로 하지 않지만 안 된 것이 없다)
- (10) 以其不自生故能長生(7장)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

다형은 가형인 'A-B'대립구조와 비교할 때, 부정형 상반관계를 나타낸다. (8)에서 '知不知'는 '안다'라는 동사의 긍정형(A)과 부정형(不A)을 번갈아 사용하여 술목형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老子』에서 '知'는 '明'과 대비되어, 현세에서의 분별하고 의식적인 행위로 배척되며, 그 반대인 '無知'를 지향하고 있다. (9)에서 '無爲'와 '無不爲'는 '無爲'가 하나의 대립항 'A'가 되며, 그 부정형인 '不A' 즉 '無不爲'가 서로 역접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역설적 대립구조이다. (10)에서는 '不自生'과 '長生'이 두 대립항으로, 동등한 의미유형과 단위를 가지지만, 의미관계상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두 대립항의 유형은, 위의 '不知知'와 동일한 형태로, '不A-A'의 관계를 이루지만 '不A'전체를 'A'로 볼 때, 동일한 'A-不A'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無爲-無不爲', '不自生-長生'의 관계처럼, 두 A, 즉 '無爲-不爲', '自生-長生'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핵심어인 '爲', '生'이 동일한 경우는 같은 A에 분류하기로 한다.

라. 'A - 不a'유형(부정적 유사 대립구조)

- (11) 大方無隅(41장)
(큰 사각형은 모퉁이가 없다)
- (12) 不貴難得之貨(64장)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 (13) 視之不見, 名曰夷(14장)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 하여 보자
- (14) 古之善爲道者, 非以明民(65장)
옛날 道를 잘 실천하던 사람은 사람을 총명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

(11)에서 '大方'과 '無隅'가 'A-不a'형의 주술형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사각형(方)의 성질은 반드시 모서리(隅)가 있어야 하지만 '無隅'라고 하여 역설적 대립구조를 만들고 있다. (12)는 '不貴'와 '難得之貨'가 두 대립항으로서, '難得之貨(A)'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a)이 상리지만, '不貴(不a)'라고 하여 상리와 대립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不a-A' 구조가 되지만, 의미관계상 'A-不a'형과 동일하여 라형에 분류하기로 한다. (13)의 "視之不見"은 '視之'와 '不見'이 대립항을 이

루고 있는 연합 대립구조이다. 보이는 것(見)은 보는(視) 동작의 당연한 결과지만, 여기서는 '不見'이라 하여 상리와 위배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4)는 두 대립항 '古之善爲道者'와 '非以明民'이 주술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리로 볼 때, 道를 잘 따르는 사람(A)은 백성을 지혜롭게 함(a)이 마땅하나 그것을 부정하여 지혜롭게 하지 않는다(不a)고 하였으니, 상리와 위배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不a' 형은 하나의 대립항(A)에 대한 속성, 행위, 결과, 방법(a)등을 부정적으로 구사하여 만든 대립구조로, 부정형 유사 대립구조로 명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老子』에 출현하는 위의 4가지 대립구조는 모두 278례이다. 그 중, 가형인 'A-B'유형과 라형인 'A-不a'유형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4가지 유형이 나타내는 함의와 관련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老子』 대립구조의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老子』 대립구조의 함의

『老子』 대립구조의 함의는 가장 큰 의미 범위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두 대립항의 의미가 서로 상반된다는 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老子가 두 대립항을 통해 하나는 옳고 하나는 잘못되고, 혹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것을 나타내어, 옳고 좋음을 지향해야 함을 피력하고 있음이다. 즉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이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와 반대로 두 대립항의 가치 동등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 대립항이 동일한 가치로 긍정되고 부정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상기했듯이, 대립적 상보성, 양가성의 함의가 모두 이러한 관점의 일부에 포함된다. 세 번째 함의는 역설적 표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道 혹은 道者의 속성과 행위, 현세의 사건들에 대한 일반인의 상반된 인식, 결과 등을 나타낸다. 3가지 방면에 대해, 老子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

(1) ‘去彼取此’적 대립

老子는 대립구조를 통해, 道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현세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소위 ‘去彼取此’적 언술이다.

(15) 聖人爲腹, 不爲目, 故去彼取此(12장)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고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12장은 ‘爲腹’와 ‘不爲目’이 두 대립항으로 이루어진 대립구조로, 위하는 것은 ‘배’이며, 위하지 않는 것은 ‘눈’이라 하였다. 배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 욕구, 혹은 내적인 자아로, 老子의 입장에서는 취해야 되는 것이며, 눈은 감각기관을 대표하며 의식작용을 통한 인위적인 구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만큼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老子는 ‘去彼取此’란 말로 버리고 취해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역시 유사한 의미로 동일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12장과 3장의 예시는 대립구조의 유형상 각각 다형인 부정적 동등 대립구조와 가형인 긍정적 대립구조에 해당이 된다. 다른 예시도 이와 동일한데, ‘去彼取此’의 ‘彼’와 ‘此’에서 알 수 있듯이,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이 대등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가형과 다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16) 知人者智, 自知者明(33장)

(남을 아는 것은 지이며 자기를 아는 것은 명이다)

(17) 塞其兌, 閉其門, 終身不勤. 開其兌, 濟其事, 終身不救(52장)

(세계와 통하는 구멍과 문을 막으면 종신토록 힘들지 않을 것이며 문을 열고 일거리를 만들면 종신토록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33장에서는 ‘知人者’와 ‘自知者’, ‘知’와 ‘明’이 양 대립항을 이루고 있으며, ‘知’는

『老子』에서 인위적인 구분 그 자체로 가장 경계하는 행위이며, '明'은 人道를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항목이다. 52장은 두 개의 복문이 두 대립항이 되는 형태로, '구멍을 막고 문을 닫음'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막아 자연 그대로의 진실을 구분하고 왜곡시키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자는 취해야 하며 후자는 버려야 한다.

(18) 物或損之而益, 或益之而損(42장)

(사물은 덜어내면 많아지고 보태면 준다)

(19)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弊則新, 少則得(22장)

(굽으면 온전해지고, 휘면 펴진다. 패이면 차게 되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줄이면 얻게 되고 늘리면 미혹된다)

42장에서는 '損'과 '益'이 대립되고 있는데, '損'은 취해야 하는 항이며 '益'은 버려야 되는 항이다. 후자는 '損', '益'을 상호 운동성 혹은 상대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잘못된 분석이다. 왕필은 이 구절에 대해 "많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덜어 내면 가까워지니, 덜어서 다 없애는 경지에 이르러야 그 궁극을 얻는다"⁴⁾라고 하였으며, 『老子』의 用字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48장에 "爲學日益, 爲道日損, 損之又損, 以至於無爲(학문은 날로 채우는 것이며 道를 행함은 날로 비우는 것이다. 비우고 또 비워 無爲에 이르게 한다)"라 하여, '損'은 지향하고 '益'은 버려야 할 항목임을 알 수 있다. '損', '益'과 같은 대립구조로 '少', '多'가 있으며, '損'과 '少'는 『老子』에서 道를 알기 위해 중요시 여기는 가치기준이다. 위의 48장을 참고하면, 덜어내야 하는 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學'이라고 하는 것은 '知'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식 속에 축적되는 모든 인위적인 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損'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쌓여온 대상화, 구분화 되어 있는 모든 인위적인 기준과 항목이 되며, 道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소위 '嬰兒(갓난아이)', '素(흰 비단)', '樸(통나무)'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22장의 '曲則全'구 역시 道의 운동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老

4)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223쪽: "愈多愈遠, 損則近之, 損之至盡, 乃得其極, 既謂之一".

자의 가르침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비우는 것이다. 이 구절의 후속구로 “不自見故明, 不自是故彰, 不自伐故有功(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면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공이 있게 된다)” 구가 이어지는데, 바로 ‘曲’, ‘枉’, ‘窪’, ‘弊’, ‘小’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不自見), 옳다 하지 않으며(不自是), 자랑하지 않는(不自伐) 행위로, 지향하고 취해야 할 항목인 것이다.

(20) 俗人昭昭, 我獨昏昏(20장)

(속인들은 초롱초롱하나 나만 어둡구나)

(21) 其政悶悶, 其民淳淳, 其政察察, 其民缺缺(58장)

(정치가 흐리멍덩하면 백성이 순진하고, 정치가 세밀하면 백성이 교활하다)

위의 예시는 모두 ‘去皮取此’의 함의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20장은 속인과 나의 대립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속인의 초롱초롱함을 버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취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초롱초롱함은 ‘學’을 통해 ‘知’를 많이 얻어 ‘言(말)’으로 自見(자기를 내세우는)하는 모습이며 어두움은 그와 상반된 모습으로 道를 행하여 항상 겸손하고 낮추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후속구인 “俗人察察, 我獨悶悶(속인들 똑똑하나 나만 멍청하다)”역시 동일한 함의의 대립구조이다. 58장은 정치가 ‘悶悶’함(흐리멍덩)과 ‘察察’함(세밀함)을 대립시켜 간접적으로 세밀한 정치를 버리고 흐리멍덩한 정치를 지향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세밀한 정치는 초롱초롱한 속인과 같이 각종 인위적인 법, 규범 등으로 속박하고 있는 형태로, 老子가 지향하는 無爲의 정치와 상반된다.

(2) 本末적 대립

老子는 두 대립항의 설정을 통해 근본과 지엽, 즉 본말적 관계를 나타내고 근본에 보다 치중할 것을 강조한다. 가치 편중이라는 점에서, ‘去彼取此’의 대립관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去彼取此’의 대립구조가 지향해야하고 금지해야하는 행위와

태도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말적 관계는 하나의 대립항이 다른 하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현상과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가형인 긍정적 동등 대립구조에서만 11례가 보인다.

- (22) 貴以賤爲本, 高以下爲基(39장)
(귀함은 천함이 바탕이 되고 높음은 낮음이 바탕이 된다)
- (23)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40장)
(은 세상 만물은 有에서 생겨나고,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
- (23)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63)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 (24) 合抱之木生於毫末, 九層之臺起於累土, 千里之行始於足下(64장)
(아름드리 나무도 작은 싹에서 생겨나고, 구층 누대도 삼태기 분량의 흙에서 시작되며, 천리 길도 발아래에서 시작된다)

39장에서 두 대립항 ‘貴’와 ‘賤’, ‘高’와 ‘下’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할 항목이 아니라 ‘貴’가 ‘賤’에서 나오고 ‘高’가 ‘下’에서 나오기 때문에 ‘賤’, ‘下’에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것이다. 40장에서 ‘無’와 ‘有’는 동일하게 없을 수 없지만 ‘有’가 ‘無’에서 나오는 이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63장은 어렵고(難) 큰(大)일은 반드시 쉽고 작은데서 출발하니 그 근본은 바로 쉽고 작음에 있는 것이다. 64장 역시 동일한 의미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름답리 나무, 구층 누대, 천리 길이 모두 그 상반된 크기의 ‘毫末’, ‘累土’, ‘足下’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후자에 가치를 편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老子』에서는 無에서 시작하여 작고, 천하고, 약한 것 등 현세에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립구조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去彼取此’의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본말적 관점에서 이를 드러내고 있다.

2) 두 대립항의 가치 동등

老子는 대립구조를 통해 양 대립항을 모두 인정 혹은 부정하기도 한다. 즉 두

대립항의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老子가 현세의 감각기관과 의식에 의해 생겨난 일체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로, 현세의 인식 상 서로 상반되는 두 대립항을 통해 이들이 그냥 존재하고, 일어나고,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지닐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선악, 호오, 시비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두 대립항의 가치가 동등하지만 노자가 강조하는 주안점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두 대립항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

美에 대한 기준은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갓난아이의 눈에는, 미녀도 추녀도 없이 그냥 사람일 뿐이다. 자라면서 美醜에 대한 기준이 생기며, 美는 좋은 것으로 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美라는 것은 본래 醜에 상대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옛날의 美가 지금의 醜가 될 수 있으니, 老子는 두 대립항을 통해 이러한 상대적 인식에 의해 생겨난 구분의 무의미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25)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較,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 (2장)

(有無는 서로 생겨나고 難易는 서로 이루어지며 長短은 서로 비교하고 高下는 서로 기울며 音聲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前後는 서로 따른다)

(26) 善之與惡, 相去若何? (20장)

(선과 악, 서로의 거리가 얼마이겠는가?)

2장은 소위 '有無相生'장으로 『老子』에서 많이 회자되는 구절이다. '有無相生'에서, '有無' 두 글자가 동등 대립항을 이루어 주어자리에서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美惡', '善不善', '難易', '長短', '高下', '音聲', '先後'가 동일한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모두 현세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한계⁵⁾를 지적하고 있다. 즉 善과

5) 2장의 '有無相生'구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뉜다. 有無相生 자체가 道의 운동이자 道라고 보는 견해가 한가지이며, 반면 이러한 대립면의 관계에 의한 상대적인 존재 원칙을 현실세계의 한계라고 보는 견해가 한가지이다. 본문에서는 이소동(2017)의 논증에 따라 후자를 따르기로 한다.(이소동, 『《老子》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학연구』 70집, 2017, 158-165 참고)

不善, 有와 無, 難과 易 등은 道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 일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善'과 '惡'이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즉 좋고, 쉽고, 높은 것은 싫고, 어렵고, 낮은 것이 있어서 인간의 감각기관과 의식에 의해 상대적으로 구분 되어 있을 뿐이다.

『老子』 일서는 시종일관 인간의 감각기관과 의식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해체를 주장하였다. '有'와 '無'를 가지고 보자. '有'와 '無' 역시 독자충인 인간의 의식을 염두 해 두고 만들어 낸 부득이한 언어 표현에 불과하다. 『老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道의 텅 빈어 있음이다. 즉 인간 의식에서의 '無'이며 감각기관으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精'이 있고, '象'이 있고, '形'이 있다. 老子는 이러한 상태를 '恍惚'⁶⁾이라 하였다. 이러한 '無'의 실체는 너무 커서 미치지 않는 바가 없이 멀리 뻗어가고, 결국에는 돌아온다. 道의 운동성⁷⁾이다. '有'는 바로 이러한 운동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보여 지는 '象'과 '形'인 것이다.⁸⁾ 道의 입장에서 보면 '有', '無'의 구분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1장에서 말하는 '無'와 '有'가 동일함이 되는 이유이다. 오태석은 유무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해 본질계와 현상계의 상호관계성으로 파악하였다.⁹⁾ 사실, 본질계와 현상계의 구분은 없다. 현상계는 단지 인간의 감각기관과 의식에 의해 잡힌 '象'일 뿐이다. 장자에서의 '物化'라고 하는 것, 즉 '물아일체'는 내가 사라지고 완전히 道와 하나된 세계로, 인간 의식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두 대립항의 본성적 가치 긍정

老子는 현세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무의미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두 대립항을 통하여,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모든 만물이 제각기 타고난 본성적 가치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美醜, 長短, 高下 등의 상대적 인식은 그러한 구분이 생기기 전, 갓난아이의 눈으로 볼 때, 그냥 그대로 보이고 일어나는 개개의 사물과 현상으로,

6) 『老子』 21장: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窈兮冥兮, 其中有精”

7) 『老子』 25장: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老子』 40장: “反者道之動”

8) 이소동, 『《老子》 '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학연구』 70집, 2017, 167-170 참고.

9) 오태석, 『老子 도덕경 기호체계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49집, 2014, 72쪽.

모두 동등한 본성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7) 物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強或贏, 或挫或隳(29장)

(만물가운데는 앞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것도 있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빨리 쉬는 것도 있고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꺾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다)

29장에서 '行'과 '隨', '歔'와 '吹', '強'과 '贏', '挫'와 '隳'는 각 구의 양 대립항으로, 양자의 가치 동등과 인정이라는 점에서 '有無相生'과 동일하지만, 老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현세의 상대적 인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에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천하의 것은 신기한 기물이니 억지로 해서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면 잃는다)"라 하였으니, 각자의 道대로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든 만물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으로 이들이 혹 부족하다 여겨 억지로 무엇을 조장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다. 이는 『莊子·駢拇』편에서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이어주면 괴로워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여겨 잘라주면 슬퍼하는 것¹⁰⁾과 동일한 의미이다.

(28) 善人者不善人之師, 不善人者善人之資(27장)

(선한 자는 불선한 자의 스승이고 불선한 자는 선한 자의 밑천이다)

(29) 善者吾善之, 不善者吾亦善之(49장)

(선자에게 나는 선하게 대하지만 불선자에게도 선하게 대한다)

위의 예시에서 '善人者'와 '不善人者'는 부정적 동등 대립구조를 이루는 두 대립항으로, 두 대립항의 가치를 모두 동등하게 인정한다. 27장은 특히, 29장과 같이 모든 만물의 다양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는 장으로, '善人者'는 '善人者'대로의 가치, 즉 '不善人者'의 스승이 되는 것이며, '不善人者'는 '不善人

10) 안동립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3, 246쪽.

者'의 가치, 즉 '善人者'의 거울이 되어,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故無棄人)', '버려지는 사물이 없음(故無棄物)'을 강조하고 있다. 49장의 '善者', '不善者'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자들로 성인은 이들을 똑같이 선하게 대함을 말하고 있다.

(3) 두 대립항의 상호보완적 가치 인정

老子는 만물의 창조 원리인 '道'의 본체적 특징과 인간이 이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인도의 방법에 대해 종종 상반되는 두 대립항을 써서 나타내었다. 이 두 개의 대립항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보완적이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을 수 없는데, '有'와 '無', '陰'과 '陽'이 대표적이다.

- (30) 無名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1장)
(무는 천지의 시작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 (31)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28장)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 (32) 萬物負陰而抱陽(42장)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는다)

老子는 동일한 대립항을 사용하지만 함의를 달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동일한 대립구조라 하더라도 노자의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1장의 '有'와 '無'는 道의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道의 양면적이고 상호보완적 함의를 가진다. 2장의 '有無相生'에서 '有無'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해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이러한 구분의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40장에 "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라고 하여 '有'는 '無'에서 생겨났다고 하였으니,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근본(無)과 지엽(有)의 관계를 나타낸다. 물론 『老子』 전체에서 '有'와 '無'의 근본적 의미는 다르지 않으며, 위의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즉 老子가 '無'와 '有'를 구분한 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염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無'에 상대적으로 보이는 것을 '有'로, 끊임없는 운동에 의해 '有無'가 교차하며, 그 근본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정기의 짝 참, 즉 '無'인 것이다.

위의 『老子』 예시는 모두 道體와 道를 따르는 삶에 대해 두 대립항을 통해 나타

내고 있다. 28장에서는 '雄'과 '雌'가 두 대립 항이 된다. '雄'과 '雌'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雄'과 '雌'에 대한 가치의 경중은 다르지 않다. 즉 '雄'의 일면에 대해 철저히 이해한 후에 '雌'에 처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곳에 거하면서 전면적인 상황을 파악함¹¹⁾을 나타낸다. 42장의 '陰', '陽' 또한 '有', '無'와 동일한 맥락으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

(4) 道의 변증법적 운동성

道는 끊임없이 운동하는데, 이러한 道의 운동성을 『老子』에서는 '反'¹²⁾이라 하였다. '反'이라 함은 道는 커서 쪽쪽 뻗어 나가 미치지 않는 바가 없는데, 극으로 치달으면 다시 되돌아옴을 말한다.¹³⁾ 老子는 한쪽 극과 다른 한쪽 극을 두 대립항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道의 운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33) 將欲歛之, 必固張之(36장)

(오무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펴 주어야 한다)

(34) 禍兮福之所倚, 福兮禍之所伏(58장)

(화에는 복이 깃들여 있고 복에는 화가 잠복해 있다)

(35) 正復爲奇, 善復爲妖(58장)

(바른 것은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좋은 것은 다시 괴상한 것이 된다)

36장에서 오무리려고(歛) 한다면 반드시 그와 상반된 상태인 펼침이(張) 있어야 된다고 함은 道의 운동에 대한 진실성과(其中有信)과 규칙성(道紀)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의 뒤로 “將欲弱之, 必固強之(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강하게 해야 한다)”, “將欲廢之, 必固興之(폐하려면 반드시 흥하게 만든다)”, “將欲奪之, 必固與之(빼앗으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의 내용이 동일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58장에서 '화'와 '복'이 서로 극과 극으로 두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 '선'과

11)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187쪽: “‘知雄守雌’實爲居于最恰切妥當的地方而對於全面境況的掌握。”

12) 『老子』 40장: “反者道之動”

13) 『老子』 25장: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악’처럼 현세의 상대적 인식에 의해 생겨난 다양성의 긍정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바로 다음의 구절에서 “孰知其極, 其無正(누가 그 궁극을 알 수 있겠는가? 정해진 것은 없다)”이라고 했듯이, 58장의 전체 내용은 극과 극이 전환되며 어떤 것도 참된 것, 정해진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즉 ‘복’이 지속되면 그 속에서 ‘화’가 싹트기 시작하고 ‘화’가 지속되면 ‘복’으로 되돌아오는 道의 운동성 즉 ‘反’을 말하고 있다. 예(35)는 동일 장의 바로 다음 구절로, ‘正’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극으로 치달으면 ‘奇’로 전환되며, ‘善’ 역시 ‘妖’로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현세에서 ‘正’, ‘善’ 등 진실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참되고 고정된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것끼리 서로 전환하는 道의 변증법적 운동성이야말로 진리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童書業이 지적했듯이,¹⁴⁾ 老子가 상반된 대립항이 한편으로 상생하고 한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老子 철학의 위대함이 아닐 수 없다.

3)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과

(1) 道(者)의 속성, 행위에 대한 상반된 인식, 결과

老子는 1장에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한계를 비롯한 의식작용에 의해 구분화되고 개념화되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한다. 따라서 道에 대해 무엇이라고 규정짓거나 개념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老子가 道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했던 방식은 道 혹은 道者의 구체적인 속성과 행위를 소개하고 현세에서의 이러한 속성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었다. 道(者)의 행위와 속성에 대해 현세에서 받아들이는 인식과 결과는 종종 상반된다. 일반인이 道를 들으면 크게 웃고 크게 웃지 않으면 道가 아니 듯이,¹⁵⁾ 이러한 道와 현세의 괴리는 『老子』에서 대립구조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道의 속성과 행위는 현세의 상리로 볼 때 아주 모순적이고 엉뚱하다. 이것이 바로 『老子』에서 역설과 부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14)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285쪽 참고.

15) 『老子』 41장: “下士聞道, 大笑之, 不笑不足以爲道.”

주로 道의 속성에 대한 현세의 인식, 道者의 행위에 대한 현세에서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대립 항의 의미가 동등하지 않으며 부정사가 있는 'A-不a'형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① 'A-B'형(긍정적 동등 대립구조)

- (36) 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7장)
(성인은 자기를 뒤로하나 오히려 앞서고 자기를 버리나 잘 보존된다)
- (37) 大成若缺, 大盈若沖,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45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결함이 있는 듯하고 크게 채워진 것은 텅 빈 듯하며 아주 곧은 것은 굽은 듯 하며, 큰 기교는 서툰 듯 하며 훌륭한 논변은 어눌한 듯하다)
- (38) 明道若昧, 進道若退(41장)
(밝은 道는 어두운 듯 하고, 나아가는 道는 물러나는 듯 하다)

7장에서 자기 몸을 뒤로 하고(後其身), 버리는(外其身) 행위는 성인 즉 道者의 행위이다. 이에 대해 현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뒤로 처지고 죽는 것이지만, 정 반대로 앞서고(身先) 산다(身存)는 것이다. 현세의 인식체계로 볼 때, 역설적인 결과이다. 7장은 소위 '天長地久'장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기를 버리고, 낮추려는 것이다. 즉 천지가 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메시지는 『老子』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곧고 바르게 자란 나무가 나무꾼의 표적이 되듯이, 자기를 드러내고 위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경쟁의 표적이 되고, 꺾이게 마련인 것이다. '曲則全', '虛', '靜', '無爲', '柔', '弱'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45장에서 '大成', '大盈', '大直', '大巧', '大辯'은 道(者)의 속성이다. '缺', '沖', '屈', '拙', '訥'은 이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이다. 『老子』에서 '大'는 道의 또 다른 이름이다.¹⁷⁾ 道의 큼은 현세에서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큼이 아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으로는 둥근 지구도 둥글다는 인식을 못하니, 道에 대해 이

16) 『老子』 7장: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17) 『老子』 25장: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처럼 상반된 인식을 하는 건 당연할지 모른다. 道의 또 다른 이름인 ‘無’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꼭 차있다. 소위 ‘大盈’이다.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無’라 이르고 비어 있다고 여길 뿐이다.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아 텅 빈 것 같지만 어디에도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41장의 “明道若昧”, “進道若退”는 ‘明’과 ‘昧’, ‘進’과 ‘退’가 동등의 대립항으로 구성된 대립구조이다. 현세에서의 일반적인 밝음과 나아감은 누구나에게 밝고,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道’의 밝음과 나아감에 대한 현세의 인식은 이와 상반된다. 즉 어둡고(昧) 물러나는(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바로 “大盈若沖”과 같이 인간의 의식구조로 파악할 수 없는 道의 ‘큰(大)’에 있다.

② ‘A-b’형(긍정적 유사 대립구조)

(39) 聖人無爲故無敗, 無執故無失(64장)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며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40) 天之道, 不爭而善勝, 不言而善應, 不召而自來(73장)

(하늘의 道는 다투지 않지만 늘 이기고 말 하지 않아도 잘 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

64장에서 ‘無爲’와 ‘無敗’, ‘無執’과 ‘無失’은 행위와 그 결과로 의미가 구성되어 있다. ‘無爲’와 ‘無執’은 道者(성인)의 행위이다. 현세의 상리로 볼 때, 무언가 하려 하지 않고 잡지 않으면 실패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 같지만, 정반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바로 앞의 구절에 “爲者敗之, 執者失之”라 하여 이 구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현세의 행위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모두 표면상 역설 구조를 띠고 있다. 이 구절의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 ‘爲’와 ‘執’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老子의 道는 자연스러움이 그 핵심이다. 인간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소위 억지 행위를 경계한다. 따라서 老子가 현세 인간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동사 단독으로 표현을 하지만, ‘의도적’, ‘억지’의 의미를 덧붙이면 老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爲', '執'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고,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무엇을 하거나 얻기 위해 잡는 행위를 나타낸다. 24장의 “企者不立”, “跨者不行” 구를 보면, 이러한 억지 행위에 대한 경계가 잘 나타나 있다. 더 잘 서고 더 빨리 나가려는 목적, 의도를 위해 발꿈치를 들고 서고(企) 다리를 벌려 뛰는(跨) 행위는 모두 억지 행위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서지 못하고 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73장에서 '不爭', '不言', '不召'는 道者의 행위이며, '善勝', '善應', '自來'는 이에 대한 현세의 인식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③ 'A-不A'형(부정적 동등 대립구조)

(41) 以其終不自爲大, 故能成其大(34장)

(절대 스스로 위대하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대해 질 수 있다)

(42) 上德不德, 是以有德(38장)

(상덕자는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덕이 있는 것이다)

34장은 '不自爲大'와 '成其大'가 두 대립항이 된다. 잘난 사람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내가 성공하고 위대해 지려면 어릴 때부터 그러한 생각을 품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세의 상리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스스로 잘났다거나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성공하고 위대해진다고 하였다. 위의 7장에서 성인은 '不自生'하기 때문에 '長生'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성인은 자기를 위해 살거나 내세우고 도모하지 않으며, 항상 자기를 낮추고, 비운다. (38)장의 의미도 이와 비슷하다. 먼저, '上德'과 '不德'이 대립항이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덕성스럽다고 느끼지만 여기서는 이와 상반되게 말하고 있다. 또한 '不德'과 '有德'이 대립항이 되기도 하는데, '不自爲大'하기 때문에 '成其大'한다는 의미구조와 동일하다. 진짜 큰 덕이 있는 자는 자기가 위대하다거나 덕성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기를 항상 낮추고 겸손하면, 타인이 그 사람을 이루어주고 높여주기 때문이다.

④ 'A-不a'형(부정적 유사 대립구조)

- (43) 不自見故明, 不自是故彰, 不自伐故有功, 不自矜故長(22장)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명철해지고, 자기를 옳다 여
기지 않으니 빛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 공이 있게 되
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
- (44) 不出戶, 知天下, 不闚牖, 見天道(47장)
(문을 나서지 않아도 세상을 알고, 창문을 통하지 않고도 천도를
본다)
- (45) 天地不仁(5장)
(천지는 불인하다)
- (46) 善爲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與(68장)
(훌륭한 장수는 무용으로 넘쳐나지 않고 전쟁을 잘 하는 자는 분
노하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

22장에서 '不自見', '不自是', '不自伐', '不自矜'은 道者의 행위이다. 현세의 인식 상 이렇게 하면 '明', '彰', '有功', '長' 할 수 없으나, 도리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다 고 하였으니, 道者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현세의 인식과 상반된 것이다. 47장을 보면, 문을 나가지 않으면 천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세의 상리이다. 하지만 道者의 행위는 이와는 정 반대로 문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고 하였으니, 현세의 일반적 기대와 정반대를 이룬다. 부정어 '不'가 먼저 출현하지만 부정어를 포함한 전체를 'A'로 볼 때 뒤의 부정어가 없는 유사 대립항은 '不a'가 되기 때문에 모두 부정적 유사 대립구조로 분류함에 문제가 없다.

5장의 '天地不仁'과 그 후속구인 '聖人不仁'에서 '天地'와 '聖人'은 道의 영역으로 道대로 살아가는 자연이다. 道대로 살아가는 자, 사물은 현세의 관점에서 마땅히 '인'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不仁'하다고 하였으니, 道의 속성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68장 역시 '善爲士者', '善戰者', '善勝賊者'는 모두 道者의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들의 행위 '不武', '不怒', '不與'는 모두 현세의 상리를 깨는 정반대의 행위들로 역설구조를 이루고 있다.

(2) 현세의 행위,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과, 방법, 속성

『老子』에서는 道(者)의 속성과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세의 행위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현세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 방법, 대상 등을 나타낸다. 모두 87례로,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으며, 역시 'A-不a'에서 가장 많이 보인다.

① 'A-B'형(긍정적 동등 대립구조)

- (47)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44장)
(너무 아끼면 크게 낭비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 (48) 欲先民必以身後之(66장)
(백성들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44장은 반의관계로 볼 수 있는 '愛'와 '費', '藏'과 '亡'이 각각 두 대립항이 된다. 아끼고 절약하면 재물이 축적되고, 많이 저장해두면 들수록 점점 더 늘어남은 현세의 상리이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큰 낭비와 크게 잃는다고 하였으니 현세의 상리와 괴리되고 있다. 너무 아끼고 너무 많이 쌓아둠은 자연의 이치가 아닌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의도적인 것으로 결국에는 과도한 욕심으로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老子의 비움과 무위에 대한 강조이다. 66장은 위의 예(36)과 두 대립항의 순서가 바뀐 경우로, 백성들의 앞에 서고자 함은 현세의 욕망으로 현세의 상리에 의하면 줄기차게 남과 경쟁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겠지만 道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몸을 낮추고 남의 뒤에 두라고 말한다.

② 'A-b'형(긍정적 유사 대립구조)

- (49) 爲者敗之, 執者失之(29장)
(억지로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애써 잡으려 하면 잃어버린다)
- (50) 戰勝以喪禮處之(31장)
(전승하면 상례로써 처리 한다)
- (51) 絕聖棄智(19장)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린다)

29장은 위의 예시(39)와 대조를 이룬다. “聖人無爲故無敗, 無執故無失”은 道者의 행위에 대한 현세에서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면 여기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현세의 행위에 대한 현세에서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1장은 ‘戰勝’과 ‘喪禮’가 두 대립항이 되며, 행위와 방법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현세의 상리로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성대한 축하와 논공행상이 따라야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상례’로써 슬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老子의 반전사상을 내포한다. 19장의 “絶聖棄智”는 ‘絶’과 ‘聖’, ‘棄’와 ‘智’가 행위와 대상의 관계로 각각의 대립항을 이루고 있다. 현세에서의 끊고 버려야 할 대상은 성스럽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함이나 오히려 성스러움과 지혜로움을 끊고 버려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여 현세의 인식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絶仁棄義”, “絶巧棄利”와 연속구를 이루고 있는데, ‘仁’, ‘義’, ‘聖’ 등은 자연스러운 道가 무너지고 난 뒤 제창된 인위적이고 속박하는 도덕규율¹⁸⁾이라는 점에서, ‘巧’, ‘利’는 인간의 의식으로 만들어낸 작은 지혜와 욕심이라는 점에서 老子에게는 모두 제거해야 할 항목인 것이다.

③ ‘A-不A’형(부정적 동등 대립구조)

(52) 無狀之狀(14장)

(모습이 없는 모습)

(53)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63장)

(함이 없음을 행하고 일 없음을 일삼고 맛없음을 맛보다)

위의 예시에서 ‘狀’, ‘爲’, ‘事’, ‘味’는 모두 현세의 아주 평범한 모습과 행위로, 구체적인 모습(狀)과 대상(爲, 事, 味)을 가진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세의 모습과 대상과는 정 반대로 구체적 모습이 없고(無狀), 실제의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無爲, 無事, 無味). 즉, ‘狀’, ‘爲’, ‘事’, ‘味’와 그 부정형 대립항인 ‘無狀’, ‘無爲’, ‘無事’, ‘無味’는 현세의 일반적 모습과 행위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모습과 대상을 나타낸

18) 『老子』 38장: “失道而後德, 失德而後仁, 失仁而後義, 失義而後禮.”

다. 구조상 완전히 모순된 역설이지만 의미의 핵심은 바로 ‘無狀’, ‘無爲’, ‘無事’, ‘無味’에 있고, 모두 현세에서 이해할 수 없는 道의 특징이다.

④ ‘A-不a’형(부정적 유사 대립구조)

- (54) 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2장)
(성인은 무위의 일을 행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 (55) 視之不見(14장)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 (56) 企者不立. 跨者不行.(24장)
(발끝을 세워 서는 자는 잘 서지 못하고 다리를 벌려 걷는 자는 나가지 못한다)

2장의 ‘無爲之事’, ‘不言之教’는 ‘無爲’와 ‘事’, ‘不言’과 ‘教’가 각각의 대립항이 된다. 현세의 일반적인 일과 가르침은 모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爲) 그리고 말(言)으로써 행해진다. 하지만 그 대상과 방법이 이와는 정반대인 ‘無爲’와 ‘不言’이 되니 역설이다. 위의 63장과 동일하게 이 구의 핵심 의미는 ‘無爲’, ‘不言’이며 道 혹은 道者의 특징이 된다. 14장의 ‘視之不見’도 후속구인 ‘聽之不聞’, ‘搏之不得’과 함께 道의 특성에 대해 대립구조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視之不見’의 의미는 현대중국어에서의 단순한 결과의미가 아니라 道는 본래 황홀하여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보이는 특성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視’의 현세적 행위에 대해 그 반대 의미인 ‘不見’의 결과를 나타내는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4장에서 ‘企’자와 ‘跨’자는 모두 그 목적이 더 높이 서고 더 빨리 가기 위한 행위이나 결과는 현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인위적이고 억지 행위에 대한 무모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 (57) 不尚賢(3장)
(현자를 높이지 마라)
- (58) 信言不美. 美言不信(81장)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않다)

(59) 知者不言, 言者不知(56장)

(지자는 말이 없으며 말이 많은 자는 알지 못한다)

3장에서는 ‘不尙’과 ‘賢’이 두 대립항이 된다. 현세에서 ‘不尙’의 대상은 ‘不賢’이지만 정반대로 ‘賢’이라고 하였으니, 역설적 대립구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자는 성인과 거리가 멀며,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知’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자이다. 후속구인 ‘不貴難得之貨’, ‘不見可欲’ 역시 동일한 구조이다. 81장과 56장은 글자의 교체 배열을 통해 역설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3가지 방면에서 살펴본 『老子』 대립구조의 여러 가지 함의는 대립구조의 유형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별 함의에 따른 출현빈도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1.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별 함의에 따른 출현빈도

		‘A-B’형	‘A-b’형	‘A-不A’형	‘A-不a’형	합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	去彼取此적 대립	41		4		45	56
	本末적 대립	11				11	
두 대립항의 가치 동등	상대적 구분	9		1		10	45
	본성적 가치	4		5		9	
	상호보완성	13				13	
	변증법적 운동성	13				13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론	道(者)	16	14	13	47	90	177
	현세	8	28	10	41	87	
합		115	42	33	88	278	

대립구조의 유형 면에서 보면, ‘A-B’형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으며, 거의 대부분이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과 동등의 함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A-不a’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A-b’형과 함께 세 번째 함의인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기만 한다.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과 동등을 나타내는 대립구조는 두 대립항의 의미유형이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A-不a’형과 ‘A-b’유형은 적합하지 않다. 대립구조의 함의 면에서 볼 때, 道의 속성, 道者の 행위, 현세의 사건 등에 대한

현세인들의 상반된 인식, 결과를 나타내는 대립구조가 월등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며, 표현수법 상 대부분이 역설에 해당한다. 이는 역설이 老子의 글쓰기를 대표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4. 결론

본문에서는 『老子』에 출현하는 역설적, 대조적 표현을 대립구조라는 공통분모로 묶어 이들의 유형과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대립적 상보성, 양가성 등으로 개괄되었던 역설적 표현의 함의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적 관점에서 노자는 ‘去彼取此’형과 ‘本末’형 관계를 설정하여 人道적 관점에서 취하고 버려야 할 행위와 태도, 하나가 하나의 근본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치 동등적 관점에서 4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두 대립항의 대한 상대적 구분에 대한 경계, 본성적 가치 인정, 상호 보완성, 변증법적 운동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립구조를 통하여 현세의 상반된 인식과 결과를 나타낸다. 道의 속성 혹은 道者の 행위에 대한 현세의 常理와 괴리되는 인식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현세의 행위, 사건에 대한 현세에서의 상반된 결과, 방법,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老子』의 대립구조는 4가지 유형으로 귀납할 수 있다. 먼저 ‘A-B’형인 긍정적 동등 대립구조는 두 대립쌍의 의미 유형과 단위가 동일하다. 주로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적, 혹은 동등적 함의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A-b’형인 긍정적 유사 대립구조이다. 의미유형과 단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의 대립항(A)에 대한 상반된 결과, 방법(b) 등을 주로 나타낸다. 셋째, ‘A-不A’형의 부정적 동등 대립구조로, 하나의 대립항에 대한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A-B’형과 동일하게 두 대립항의 가치 차등적, 혹은 동등적 함의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A-不a’형인 부정적 유사 대립구조이다. ‘A-b’형과 함께 현세와 상반된 인식과 결과의 함의만 나타내고 있다.

함의별 출현빈도로 볼 때, 'A-b'형과 'A-不a'형을 통해서 道와 현세에 대한 상반된 인식과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립구조가 가장 많이 출현한다. 수사법상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역설적 표현에 해당되며, 노자의 글쓰기가 역설로 대표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參考文獻〉

- 吳澄, 『道德眞經吳澄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林希逸, 『老子虞齋口義』,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範應元, 『老子道德經古本集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高明, 『帛書老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6.
高亨, 『老子註釋』,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0.
林語堂, 『老子的知慧』,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許抗生, 『帛書老子註釋及研究』,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2.
夏旦大學哲學系老子註釋組, 『老子註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朱謙之, 『老子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4.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馮友蘭, 『中國哲學簡史』,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4.
안동립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3.
최진석, 『老子的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 소나무, 2001.
최진석, 정지욱 역, 『老子義疏』, 경기, 소나무, 2007.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김용옥, 『老子와 21세기』, 서울, 통나무, 1999.
이경무, 「老子 철학에 있어서의 역설과 부정」, 『범한철학』 제59집, 2010.
안희진, 「『老子』, 그 역설의 문학을 논함」, 『중국학』 제51집, 2015.
오진탁, 「『도덕경』에서 '正言若反'의 철학적 함의」, 『인문학연구』 2·3집합본호, 1996.
오태석, 「老子 도덕경 기호체계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49집, 2014.
오태석, 「역설의 즐거움: 노장 존재론의 부정성」, 『중국어문학지』 제51집, 2015.
이소동, 「『老子』 '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학연구』 70집, 2017.

〈Abstract〉

Analysis of the Types and Implications of the 『LAOZI』 Opposition Structure

Lee, So-Dong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e types and implications of the 『LAOZI』 opposition structure. The opposition structure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first is a positive equal opposition structure of 'A-B' type. The meaning types and units of the two opposing pairs are the same. Second, there is a positive analogous opposition structure of 'A-b' type. The semantic type and unit are not the same, and the opposite result, method (b), etc. for a single opposite (A), are mainly shown. Third is the negative equal opposition structure of 'A-不A'. It is composed of affirmative and irregular forms for one opposition. Finally, it is a negative analogous opposition structure of 'A-不a' type.

The implications of the opposition structure can be seen from three points of view. First, it is a viewpoint of the value difference of the two opposites. This implies the implication of the '去彼取此' and '本末'. Next, it is a viewpoint of the value equal, which conveys four messages. The Meaningless for the relativ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opposites, the recognition of this natural value, complementarity, and dialectical motility. Finally, it shows the perception and results that are contradictory to the present. It also shows the contradictory perceptions and results of the '道's attributes or the '道者's acts and may also represent contradictory results, methods, and attributes of the present behavior or event.

Key words: 『LAOZI』, opposition structure, types, implications, '去彼取此'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4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11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